

中企 지원사업 232개 손질… 4조 절감해 신성장에 재투자

중기부 등 범부처 재정융합의회 22개 부처 671개 중 472개 대상 유사·중복·소액·저성과 사업 정비 절감 예산 신안보·기후테크 재투자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 지원 개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17개 부처에 있는 47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약 25조 5000억원) 중 232개를 통·폐합하는 등 효율화에 총 4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한다.

줄인 예산은 신안보·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와 고성과 사업, 신규 랜드마크 사업 등에 재투자한다.

27일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융합의회에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141개), 산업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융합의회'에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중기부

(130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96개), 기후에너지부(72개), 농림축산식품부(60개) 등 22개 부처에 모두 671개가 있고 금액으로는 총 30조 951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472개를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실제 232개 사업에 대해 통합, 폐지, 감액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88개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또는 폐지해 사업 수를 19개로 확 줄였다. 이를 통해 2조 4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50억원 미만 소액사업도 통폐합해 196개를 53개(1309억원 절감)로, 기업당 5000만원 미만을 지원하는 '나눠주기사업' 106개 가운데 12개는 폐지, 32개 사업은 감액해 2760억원의 예산을 줄인다.

아울러 성과가 낮은 83개 사업 중 13개를 폐지하고 31개는 예산을 줄여 4819억원을 추가로 절감한다.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도 18개는 정리, 35개는 감액해 8452억원을 절감한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효율화 대상 사업은 내년 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효율화의 핵심으로, 절감한 4조원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 핵심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성과'에 방점을 찍는다는 이야기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을 인구감소, 낙후도 등을 고려해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국비 지원 한도와 국비와 지자체 매칭 비율 등을 차등해 우대한다.

예산 효율화를 통한 신성장 분야 재투자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에 집중한다. 특히 중기부는 이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매년 발굴한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화, 금융, 수출, 인력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100

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박용순 실장은 "지원방식은 우선 2년간 지원 후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3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면서 "과감한 묶음 지원을 위해 내년에만 관련 예산 2388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절감한 예산은 부처별 중점 사업 추가 지원,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쓰인다.

▲중소→중견 도약(JUMP-UP) 프로그램(중기부)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강화(농식품부) ▲공공조달 활용 혁신 벤처·스타트업 판로 개척(조달청) ▲중소형 조선사 수주 지원 확대(산업부) 등이 대표적이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생계형 줄고 '기술창업' 늘어

중기부, '상반기 창업기업동향' 상반기 창업 56만여개 1.5% 감소 기술기반 창업 12만여개 14.2% 증가

올해 상반기 창업은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은 줄고 정보통신업 등 기술 창업이 증가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내놓은 '2026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창업은 56만 5640개로 전년 동기에 비해 8880개(1.5%) 줄었다.

올 상반기에는 정보통신업(59.4%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6.9% ↑), 교육 서비스업(4.4% ↑)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을 중심으로 창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2만 3418개로 전년 동기 대비 14.2% (15,333개) 증가했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3.0%p 상승한 21.8%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업(10.7% ↓), 운수·창고업(5.8% ↓), 개인서비스업(3.8% ↓) 등은 창업이 줄었다.

월별로는 1월과 3월 창업은 전년 동월 대비 늘었지만 2월과 4월부터 6월까지의 전년 동월 대비 창업이 감소했다. 연령대별 창업은 30세 미만(3.9% ↓), 30대(2.3% ↓), 40대(3.2% ↓), 50대(0.8% ↓)가 모두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 /김승호 기자

두산그룹, 네팔 홍수에 500만弗 긴급 지원

피해지역 수색·구조 등 재해 수습 투입 정연인 부회장 현장대응팀과 네팔행 비상대책본부 가동해 사고 수습 총력

두산그룹이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달러(약 70억원)를 긴급 지원하며 현지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탠다.

두산그룹은 27일 네팔 홍수 피해지역의 긴급 구조와 복구를 위해 5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수색과 구조 등 재해 수습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 신속한 수습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팔에서는 전날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가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치면서 한국인 직원 9명과 연락이 끊겼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소속이 6명, 한국남동발전 소속이 3명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사고 직후 국내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지 상황과 직원들의 상태를 파악하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이사가 27일 인천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 있다.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현장대응팀도 이날 네팔로 보내 수색·구조 지원과 사고 수습에 나섰다.

정 부회장은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네팔에 도착하는 대로 현장 대응을 직접 이끌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체급 키우고 더 똑똑해 졌다… 국민 첫 차의 진화”

YG의 CAR TALK 다독

현대차 아반떼

전폭 키우고 트렁크 479L 공간 확보 대형 디스플레이·AI 음성 기능 탑재 플레오스 커넥트로 편의사양 대폭 강화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효율성 등을 앞세워 '국민 첫 차'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아반떼가 완벽하게 달라졌다.

전작보다 300만원 넘는 가격 인상뿐 아니라 한층 커진 차체, 여기에 현대차의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특히 그랜저에 최초로 적용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오스 커넥트'를 탑재했으며 대형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지원 글레오 등 신형 아반떼는 형님격인 쏘나타를 넘어섰다.

지난 24일 경기 일산에 위치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출발해 인천 영종도가



현대차 아반떼.

/양성운 기자

지 기술린 2.0 모델을 타고 약 90km 구간을 주행했다.

신형 아반떼의 첫 인상은 한층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전 세대까지 날렵한 디자인을 강조했다면 이번 모델은 단단한 근육질 몸매에 가깝다. 펜더와 쿼터 패널에 볼륨을 더해 차체 전체에 힘을 줬다. 사선속 모습과 전혀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단순히 크기만 비교하면 신형 아반떼 전장은 4765mm, 전폭은

1855mm, 휠베이스는 2750mm로 한 체급 위인 쏘나타(4910mm, 1860mm, 2840mm)와 비교하면 전장은 145mm, 휠베이스는 90mm, 전폭은 단 5mm 차이다.

실내공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기어 노브가 핸들 뒤편으로 옮겨가면서 센터 콘솔 중앙의 수납공간이 넓어졌다.

트렁크 용량은 479L(VDA 기준)다.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의 480L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 /양성운 기자 ysw@

삼표그룹

산림·임업 인재 육성

5기 장학생 5명 지원

삼표그룹이 산림·임업 분야 연구자 추가 육성에 나섰다. 삼표그룹은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지난 25일 전남 소노캄 여수 그랜드볼룸에서 제5기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은 산림·임업 분야의 석박사 과정 연구자를 발굴·지원하는 학술 장학 프로그램이다. 이론 중심의 기초연구를 넘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질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1기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5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한국산림과학회에 서류 및 면접심사를 위탁하여 제5기 장학생 5명을 최종 선발했다. /김승호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역할 모색

중기중앙회, 16개 시도와 합동워크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6개 광역자치체와 27~28일 충남 아산에서 '2026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역할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선 우수조합 현장을 견학(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협동조합)하고 지자체별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에 방문하는 2개 협동조합은 업종별 특성에 따른 조합원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함께 에티오피아·필리핀 등에 농기계 R&D 센터를 조성하는 공작개발원조(ODA) 사업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농기계 및 자재 박람회인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개최를 주관하는 등 조합원사의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협동조합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의 예산 지원과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정비관련 전문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해 정비인력을 양성한다. 위생악·와이프 등 정비 관련 소모품 공동구매를 통해 조합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